

## 허삼영 삼성 감독 "오승환 복귀, 나도 설레…오늘 등판"

등록 2020.06.09 16:44:00



【서울=뉴시스】허삼영 삼성 라이온즈 신임 감독이 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제공)

[대구=뉴시스] 김희준 기자 = '끝판 대장' 오승환(38)의 복귀에 허삼영 삼성 라이온즈 감독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허 감독은 9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오승환이 복귀해 감독인 저도 설렌다. 빨리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선수단 전체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도박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72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오승환은 지난 7일 인천 SK 와이번스전을 마지막으로 징계를 마쳤다.

삼성은 징계를 마친 오승환을 곧바로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지난해 8월 삼성과 계약하고 징계를 소화한 오승환은 계약 이후 약 10개월 만에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오승환이 KBO리그 1군 엔트리에 등록된 것은 2013년 10월 3일 이후 2441일 만이다.

앞서 오승환은 징계 만료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부터 1군 선수단과 동행했다.

허 감독은 "경산에서 훈련을 이어가면 아침 일찍 가서 운동을 하고, 오후에 빨리 끝난다. 그것보다는 1군과 동행하며 1군 경기 일정에 맞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봤다. 그래서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오승환은 이날 곧바로 복귀전을 치를 전망이다. 오승환이 이날 마운드에 오르면 2013년 10월 2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 이후 2442일 만에 KBO리그 마운드에 서게 된다.

허 감독은 "오승환은 오늘 등판할 계획이다. 오늘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1이닝 정도는 소화할 것"이라며 "다만 몇 회에 등판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번 3연전에 최대 2번까지 등판시킬 계획만 잡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시스]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이 1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자체 청백전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제공)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에 단 1개만을 남긴 오승환이 이 기록을 달성하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세이브 상황에 등판하는 것은 언제쯤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허 감독은 "경기력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정확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위가 무척 좋더라도 이번 3연전에서는 세이브 상황에 등판시키지 않을 생각이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전력분석 팀장의 자리에서 오승환을 지켜봤던 허 감독은 이번에는 사령탑의 입장에서 그와 함께한다.

허 감독은 7년 만에 KBO리그에 돌아오는 오승환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미국을 거치며 구종이 다양해진 것에도 놀라움을 드러냈다.

허 감독은 "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 러닝을 하는 것만 봐도 아주 좋은 상태"라며 "오승환을 믿고 경기에 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승환의 불펜 투구나 연습 경기 등을 보면서 놀랐다. 던질 수 있는 구종이 많아지고, 다양해졌다"며 "투수들이 한 가지 구종을 연마하고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 구종을 마스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 가기 전에 직구와 슬라이더만 던졌고, 직구 비율이 70% 정도 됐다. 지금은 슬라이더도 여러가지로 던지고, 컷 패스트볼, 투심 패스트볼 뿐 아니라 못 던지던 커브도 던진다"며 "실전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믿음을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